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차 예비평가 정답 및 해설

※ 이감에서 제공하는 학습 서비스를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서 '이감TV'를 검색하세요.

• 국어 영역 •

정답

1	①	2	②	3	⑤	4	①	5	③
6	②	7	④	8	②	9	⑤	10	②
11	③	12	③	13	⑤	14	①	15	③
16	③	17	②	18	③	19	②	20	①
21	③	22	①	23	①	24	⑤	25	⑤
26	②	27	④	28	⑤	29	③	30	⑤
31	④	32	⑤	33	③	34	④	35	⑤
36	④	37	③	38	②	39	④	40	①
41	④	42	⑤	43	④	44	③	45	⑤

해설

[1~3] (화법) 연계 지문 : 수능특강 96쪽

1. [출제의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연자는 자료 설명 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영양학회' 등의 정보 출처를 언급하여 강연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 [출제의도] 강연을 들은 청중의 듣기 활동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연의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듣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습관을 반성하고 있다. ③ 강연을 통해 때에 맞춰 식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당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이라는 내용을 듣고 당분 섭취 과다로 인한 질환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3. [출제의도] 발표에 활용된 시각 자료의 활용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연자는 ㉠에서 <자료 2>의 식품 구성 자전거를 활용하여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를 위해 섭취해야 하는 식품의 종류와 상대적인 섭취량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답풀이] ①, ②, ③ <자료 1>은 뼈 성장 등에 필수적인 칼슘은 권장량 대비 섭취량이 부족한 반면, 과다 섭취 시 건강에 좋지 않은 나트륨은 권장 섭취량의 세 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4~7] (화법-작문) 연계 지문 : 수능특강 93쪽

4. [출제의도] 토론 참여자의 입론을 쟁점별로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반대 1'은 '지금도 금고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민 소환제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선거에 의한 파면 제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풀이] ③ '반대 1'은 소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행정적 노력과 막대한 비용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 소환제가 비효율적 제도임을 언급하였다. ④ '찬성 1'은 국민 소환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들이 파면을 우려하여 올바른 의정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방만했던 의정 활동이 올바르게 바뀌는 것이므로 의정 활동 개

선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토론의 특정 발화에 드러난 말하기 방식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에서 '찬성 1'은 '선진국들이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요'라고 상대측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영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6. [출제의도] 토론 중 메모한 내용이 학생의 글쓰기 전략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학생이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국회 의원들의 선심성 공약 이행에 회의적인 국민들의 생각'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여론 조사 결과는 국민 소환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음을 보여 주기 위해 쓰였다.

7. [출제의도] 조언에 따라 마지막 문단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히 구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장을 통해 '앞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여 국민 소환제 도입의 긍정적 측면을 정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둘째 문장을 통해 '4문단에 썼던 두 단어(사회적, 손실)를 활용하여 국민 소환제 도입에 대한' 생각을 강조하며 마무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8~10] (작문) 연계 지문 : 수능특강 61쪽

8. [출제의도]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 글에 반영된 것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패스트 패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9. [출제의도]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가 '초고'에 적절히 활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에서는 패스트 패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환경세를 부과하거나 친환경 공정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패스트 패션 기업들을 감시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⑤에서는 ㉠을 패스트 패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폐기 과정에서 화학 물질이 빠져나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의 구체적 원인을 찾아 설명하였다. ④ ㉠의 '의류를 친환경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움직임'을 '옥수수, 대나무 등을 이용해 옷감을 만들거나 천연 염색을 시행하고 있다'고 구체화하였다.

10. [출제의도]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글을 적절히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환경 오염과 노동력 착취'는 패스트 패션의 이면에 숨어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문제'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부사격 조사 '에'가 아닌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해야 한다. 또 '초고'에서는 패스트 패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로 '소비자들'만을 언급했으나 '고쳐 쓴 글'에서는 '소비자, 기업, 정부'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편집부에서 '노력의 주체가 일부만 제시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15] (언어)

11. [출제의도] 관형절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35쪽)

안은문장의 주어로 기능하는 ③의 '섬이'는 관형절에서도 주어의 기능('한곳에 섬이 떨어져 있다.')을 한다. 또한, 안은문장의 목적으로 기능하는 ③의 '소포들'은 관형절에서도 목적어의 기능('누나가 집으로 소포를 보냈다.')을 한다.

[오답풀이] ① 안은문장에서 목적으로 기능하는 '식사를'은 관형절에서는 주어의 기능('식사가 제대로 되었다.')을 한다.

12. [출제의도]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의 종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24쪽)

'칫'은 자립성이 있는 형태소 2개('칫', '눈')가 결합하여 구성된 단어이다. '칫'은 '나는 오늘 고등학교에서 칫 시험을 봤다.'와 같이 홀로 띄어 쓸 수 있으므로 자립성을 가진다.

[오답풀이] ① '새것'은 자립성이 있는 형태소 2개('새'와 '것')가 결합하여 구성된 단어이다. '새'는 '영희는 새 물건을 가져왔다.'와 같이 홀로 띄어 쓸 수 있으므로 자립성을 가진다. '것'은 의존 명사로, '영희야, 너 먹을 것 있니?'처럼 홀로 띄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자립성을 가진다.

13. [출제의도] 어절과 단어를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24쪽)

조사는 홀로 띄어 쓸 수 없으므로 독립적으로 어절을 구성할 수는 없으나, 앞말과 분리하려는 성질이 있음을 감안하여 하나의 단어로 인정한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어절의 개수는 ㉠이 세 개('나는', '밥을', '밖으로'), ㉡이 세 개('형이', '산에', '노래를')로, 같다.

[오답풀이] ④ 한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어절의 개수는 ㉠에서 세 개('한', '바라보고', '있다')이며, ㉡에서는 두 개('올라', '불렀다')이다.

14. [출제의도] 한 단어를 발음할 때,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음운 변동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19쪽)

㉠은 된소리되기, ㉡은 음운 첨가,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덧엮고[덧넉꼬]'에서는 '고'의 'ㄱ'이 'ㄱ'으로 바뀌어 발음되었으며(㉠), '엮'의 초성에 이전에는 없었던 음운인 'ㄴ'이 첨가되었고(㉡), '덧'의 'ㅅ'과 '엮'의 'ㄱ'이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인 'ㄷ'과 'ㄱ'으로 각각 제한되었다(㉢). 단, '덧'은 ㉢에 의해 [뎃]으로 바뀐 뒤, 뒤 음절의 초성에 첨가된 'ㄴ'의 영향을 받아 종성의 'ㄷ'이 'ㄴ'으로 바뀌어 최종적으로는 [뎃]으로 발음된다. '술있도[술립또]'에서는 '도'의 'ㄷ'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었으며(㉠), '있'의 초성에 이전에는 없었던 음운인 'ㄴ'이 첨가되었고(㉡), '있'의 'ㄱ'이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인 'ㄴ'으로 제한되었다(㉢). 단, '있'에 첨가된 음운 'ㄴ'은 앞 음절인 '술'의 종성 'ㄷ'의 영향을 받아 'ㄷ'로 바뀌어 최종적으로는 [립]으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④ '첫여름[천너름]'에서 '여'의 초성에 'ㄴ'이 첨가되었고, '첫'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제한되므로 ㉠과 ㉢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을 올바르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86쪽)

중세 국어에서 선어말 어미 '-시(샤)-'는 주체를 높이는 데에 쓰였으며, 선어말 어미 '-줄-'은 객체를 높이는 데에 쓰였다. ㉠의 '煞々샤'와 ㉡의 '발즈불'은 각각 선어말 어미 '-시(샤)-'와 '-줄-'을 통해 대상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의 '발즈불'이 어말 어미를 통해 대상을 높인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④ 중세 국어에서 주격 조사는 음운 조건에 따라 다른 형태로 실현되었다.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 다음에 오는 주격 조사는 'ㅣ'로 실현되었고, 자음 다음에 오는 주격 조사는 '이'로 실현되었다. ㉠에서 '왕이'의 '이'와 ㉡에서 '善宿ㅣ'의 'ㅣ'는 모두 주격 조사로, 음운 조건에 따라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19] (기술)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48쪽

16.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바닥상태의 세습 원자는 주파수가 '시계 주파수'에 해당하는 9,192,631,770 Hz 미만인 전자기파와 상호 작용한다. 다만, 그 에너지를 흡수한 뒤 곧바로 방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전기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단위 시간당 진동하는 횟수인 주파수에 비례한다. ② 세습 원자의 바닥상태는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A 상태와 B 상태로 구분된다. ④ 수정이 생성하는 전자기파는 수정에 가해지는 전압의 세기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며,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수정에 가해지는 전압이 높을수록 수정이 생성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 역시 높아진다. ⑤ 수정 발전기는 자신에게 전달되는 오차 신호의 절댓값에 비례하여 전압의 세기를 높이거나 낮춘다.

17.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장치의 원리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세습 원자가 A 상태와 B 상태일 때 지니는 에너지 차이는 항상 일정하며, 그 크기는 '시계 주파수'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의 에너지와 동일하다. 세습 원자시계는 이를 이용하여 '시계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를 안정적으로 생성함으로써 시계로 작동한다.

[오답풀이] ① 세습 원자가 바닥상태에서 전자기파를 흡수하면 최외각 전자의 궤도가 변하면서 다른 미세 상태 또는 들뜬상태로 전이된다. ③ 세습 원자는 바닥상태에서 들뜬상태로 전이함에 따라 최외각 전자의 스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최외각 전자의 스핀이 변함에 따라 하나의 미세 상태에서 다른 미세 상태로 전이한다. ④ 세습 원자는 또 다른 미세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흡수한다. ⑤ 세습 원자가 바닥상태에 있을 때 '시계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와 동일한 크기의 에너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바닥상태일 때 가지는 에너지의 차이가 '시계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의 에너지와 동일하다.

18.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장치가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유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세습 원자시계는 내부에서 생성되는 전자기파가 진동하는 횟수를 세어 1초의 길이로 삼기 때문에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변하면 이로부터 측정된 1초의 길이가 달라진다. 따라서 세습 원자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생성되는 전자기파가 항상 '시계 주파수'를 가지도록 조정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세습 원자시계가 생성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조정하는 이유는 단위 시간당 진동 횟수인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세습 원자들의 통계적 분포를 감지하는 것은 피드백 전자 회로이며, 이 피드백 전자 회로가 전달한 오차 신호를 바탕으로 수정 발전기가 오차를 보정한다. ④ 세습 원자시계 내부에서 생성된 전자기파를 흡수한 세습 원자는 전자기파의 에너지에 따라 전이되는 상태가 달라진다. ⑤ 세습 원자를 A 상태에서 B 상태로 전이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주위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19.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보기>에는 수정에 가하는 전압과 세습 원자의 표류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피드백 전자 회로가 수정 발전기에 전달하는 오차 신호를 확인하는 실험이 제시되어 있다. 표류 속도를 기준치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1.2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오차 신호가 0이 되었다는 <보기>의 사례로부터 표류 속도나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나타날 결과를 지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수정 발전기에 1.0V의 전압을 가하면 표류 속도에 상관없이 세습 원자들은 A 상태에 밀집되어 분포하고, 그 결과 오차 신호의 부호는 항상 음수가 된다. 따라서 오차 신호의 부호로부터 표류 속도가

260 m/s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표류 속도가 기준치보다 낮으면 세습 원자들이 전자기파와 충분히 상호 작용하며, 이때 전압이 1.5V이면 '시계 주파수'를 초과하는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가 생성되어 세습 원자와 상호 작용하게 되고, 그 결과 세습 원자는 들뜬상태로 밀집되어 분포하게 된다. ③ 전압의 세기를 낮추어 낮은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를 생성하더라도 표류 속도를 기준치보다 낮게 유지하면 세습 원자들이 전자기파와 충분히 상호 작용하지만, 전자기파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가 적어서 다른 상태로 전이되지 못하고 A 상태에 밀집되어 분포한다. ④ 표류 속도가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에 오차 신호가 음수라면, 생성된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시계 주파수' 미만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⑤ 표류 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원자 공간기 내부의 세습 원자가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여 A 상태에 밀집되어 분포할 것이고, 이때 오차 신호는 음수가 되므로 이를 전달받은 수정 발전기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전압의 세기를 높이게 된다.

[20 ~ 22] (현대시) 박목월, '윤사월'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연계 지문 : 수능 특강 76쪽, 79쪽)

20. [출제의도] 두 시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채 윤사월의 외딴 산골이 묘사되고 있으므로, 화자는 시적 상황 바깥에 있다. (나)의 화자인 '나'는 어머니 무덤가에서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며 진술하고 있으므로 시적 상황 내부에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 변화도, (나)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이어지는 시간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이 활용된 시구를 확인할 수 없다. (나)에서는 '서울에서 문혀 온 온갖 잔소리들'에서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전이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시구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시의 맥락으로 볼 때, '윤사월'의 '해'가 '길다'고 우는 것은 '피꼬리'이다. 음력 5월경에 번식을 하는 피꼬리로서는 음력 4월 뒤에 4월 한 달을 더 끼워 넣은 '윤사월'을 지루하게 느낄 것이라 상상하고, 그래서 피꼬리가 해 길다고 우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겠다. 시적 상황에 등장하지도 않는 화자가 한탄하는 행위의 주체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화자의 모습에서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고 할 수도 없다.

[오답풀이] ② <보기>와 결부해 보면 한 장소(= '외딴 봉우리')에서 살아가는 소나무는 자기 나름의 고독한 세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나무가 번식을 위해 송화가루를 날리는 것은,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갈망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짹짹기를 앞두고 '해 길다' 우는 '피꼬리'의 울음에는 근원적인 생명의 약동이 담겨 있을 것이고, 이 소리를 '엿듣'는 '눈먼 처녀' 역시 비록 눈은 멀어도 젊은 처녀인 만큼 활발한 생명의 기운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피꼬리'의 울음소리를 '눈먼 처녀'가 엿듣고 있는 모습은, 생명 가진 한 존재가 생명 가진 또 다른 존재에 감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보기>와 결부하면, 이 모습에서는 다른 존재와 감응하려는 존재의 지향과, 이 지향으로부터 삶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근원적 동력을 찾으려는 관점을 엿볼 수 있다.

22. [출제의도] 내적 맥락과 결부하여 시구의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화자가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선산' 뒤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갖게 된 느낌을 담은 이미지로서,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이나 공허감 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자가 이 '여백'을 '말씀보다 큰'

것으로 느끼는 것은, 살아생전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기억보다 '어머니'의 부재에서 오는 상실감이 더 크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말씀'의 내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거나, 화자가 느끼는 내적 혼란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③ ㉠은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어'를 거쳐 '존재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둥근 여백'에서 떠올릴 수 있는 '무덤'의 심상이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는 '뒤안길'로 이어지고, 그것이 모든 '존재'들이 생성,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따라서 어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화자의 사색이 '존재' 일반에 대한 깨달음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은 '여백이란 탄생이구나'라는 역설적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는 화자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생겼던 '여백'이 다양한 자연물들의 만남과 이별로 이어지는 생성의 흐름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목도한 후에 만남과 이별의 순리를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탄생'은 화자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상실의 아픔을 떨쳐내고 자기 앞에 열리는 생성의 흐름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은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조성되는 '고요한 여백' 아래이므로 화자 자신이 부재하게 되는 시간 속의 공간을 나타낸다. 화자는 ㉠에서 '내가 앉아' '노을'이나 '시냇물 같은' 풍경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자신의 부재를 뛰어넘어 정신적 유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이해하는 것도 적절하다.

[23 ~ 25] (고전소설) 조위환, '최척전'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39쪽)

2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최척은 '의병에 뽀혀서 동행하게 되었'고, '진중에 있으면서 옥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몸이 아프게 되었'으며, 이후 '혼례를 치르기' 위해 '휴가를 청'했기 때문에, 최척이 혼례를 앞두고 입대하여 진중에서 병을 얻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옥영과 양생의 혼담은 최척과 옥영이 약속한 날에 혼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거론되게 된 것이다. ③ 양생이 '벼물을 주어 정 공의 아내와 결탁'한 것이지, 정 공의 아내가 양생을 설득한 것이 아니다. ④ 정 공 부부는 옥영과 양생의 혼사를 심씨에게 '빈갈아 가며 권하'었다고 했다. ⑤ 최척은 '몽선이 건강하여 의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옥영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24. [출제의도] 두 인물의 발화 방식의 특징과 그 의미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정 공의 아내는 '최생은 ~ 어느 겨울에 부모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라며 최척의 가난을 강조하여 심 씨가 양생을 사위로 선택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B]에서 옥영은 '~ 남들이 어떻게 제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라며 심 씨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두 인물의 비교는 [A]에서만 확인되는데, 비교의 내용도 뒤편이 아니라 재력 등에 집중되어 있다. 발화의 목적도 상대의 신뢰를 얻기 위해가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② [B]에서만 '하늘 같은 어머니'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④ [A]와 [B]의 발화자 모두 상대의 심리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으나, [A]에서는 발화자(정 공의 아내)가 처한 상황이 언급되지 않으며, [B]에서도 발화자(옥영)가 처한 상황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뿐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하찮은 오랑캐 추장이 감히 ~ 형세는 계란을 깨는 것과 같소.'라는 말에서, 최척이 오랑캐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④ ‘최척이’ 요양으로 가시면 다시 살아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란으로 인한 이별의 고통을 다시 겪느니 차라리 자결하고 말겠다는 옥영의 말에서, 전란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끼친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26 ~ 31] (인문-사회) 연계 지문 : 수능특강 50쪽

26.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반계 유형원의 ‘실리’와 관련된 이론을 분석한 후에 그 이론이 반영된 균전제와 공거제를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조선 후기의 문제되는 현실 상황이 제시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탐색하고 있지는 않다. ③ 주기파와 주리파의 대립되는 이론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그중의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④ 정통 유학의 견해를 반박하는 반계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이론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⑤ 반계의 이론에 포함된 여러 개념을 분석하고 있지만, 필자가 이 개념들을 사회 현실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27.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개념들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지리’는 ‘이’를 단지 ‘기의 이’로 봄으로써 ‘이’가 ‘기’에 구속됨을 강조한 개념이다. 따라서 ‘기지리’에 따를 때 이선기후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지리’에 따를 때 ‘이’와 ‘기’의 관계가 상하 관계인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풀이] ① ‘기지리’는 ‘이기불리’를 강조하는 주기론의 입장에 따라 ‘이’를 규정한 것이다. ② ‘물지리’는 현실의 사물을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주재성을 갖춘 ‘이’를 강조한 개념이다. 따라서 ‘물지리’는 ‘이’의 우월성과 본연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③ ‘기지리’는 ‘이’가 ‘기’에 구속됨을 강조한 개념이므로 ‘이’와 ‘기’가 서로 분리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물지리’도 사물에 ‘이’와 ‘기’가 함께 들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⑤ ‘기지리’는 ‘기’에 구속된 ‘이’를 강조한 개념이므로 ‘이’를 ‘기’와의 관계에서 규정한 것이다. ‘물지리’는 ‘이’를 사물의 원리로서 파악한 것이므로 ‘이’를 세상의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규정한 것이다.

28.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입장에서 <보기>의 견해를 적절하게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격물치지’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정이의 견해가 소개되어 있다. ‘격물’의 궁극적 목적은 ‘치지’인데, ‘치지’는 인심에 있는 ‘성리’, 즉 선(善)을 깨닫는 것이다. 정이는 인욕에 휩쓸리지 않고 선한 마음인 성리를 지각해야 사회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정이의 입장은 내면의 도덕성을 회복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입장이다.

[정답풀이] 정이가 사물을 궁구하는 ‘격물’ 그 자체보다는 마음의 선(善)을 지각하는 ‘치지’에 ‘격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 것은, 사물보다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반계는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도덕을 실현할 수 없다고 보고 도덕적 당위를 권고하기보다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이가 ‘치지’를 통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한 것에 대해, 반계는 도덕적 당위를 권고하는 방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반계는 ‘이’의 우월성과 본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가 ‘기’의 구속을 받는다고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가 ‘기’의 구속을 받는다는 사실을 묵과한다는 것은 반계의 비판으로 적절치 않다. ② 반계는 ‘성리’와 인욕이 상하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이처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반계 역시 물(物)의 ‘이’와 인간의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반계가 말하는 ‘이’의 주재성은 인간의 ‘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가 지닌 주재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④ ‘치지’가 ‘격물’에 달려 있다는 것은 ‘격물’로부터 ‘치지’가 유래한다는 의미이다. 이것 자체는 ‘격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제도 개혁을 등한시했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29.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기부잡’은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의 근원성과 우위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따라서 ‘이기부잡’을 주장하는 관점은 현상의 존재 근거 측면에서 ‘이’와 ‘기’를 바라본 것이다.

[오답풀이] ① 관료가 벼슬을 그만두더라도 수전권은 여전히 인정된다. ② 균전제로는 지식인층의 토지 소유를 완전히 잠재할 수 없어서 반계는 공거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④ 반계의 사회 제도 개혁안은 제도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⑤ ‘이’와 ‘기’를 형이상과 형이하의 관계로 보면 도(道)뿐만 아니라 기(器)도 중시 여기게 된다는 것이 반계의 생각이다.

30. [출제의도]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에 소개된 제도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균전제 시행 방식을 ‘이인위본’과 ‘이지위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인위본’은 사람 단위에, ‘이지위본’은 토지 단위에 백성의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인위본’은 ‘이지위본’과 달리 조세와 균역이 이웃에 전가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지위본’에서도 토지 사유와 매매를 허용하면 균역이 문란해지는 폐단이 생긴다.

[정답풀이] 보인 3명이 정병의 복무 비용을 충당하도록 한 것은 4경 단위로 1명의 정병을 징발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4경 단위로 1명의 정병을 징발하는 것은 토지 단위로 균역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인위본’이 아니라 ‘이지위본’ 방식을 택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반계의 균전제에서는 토지를 배당받은 농민에게 수전권을 부여하고, 수전권이 부여된 토지 4경을 단위로 1명의 병사를 징발하는 방식으로 균역을 부과하였다. 이렇게 수전권을 기준으로 균역을 부과하면 수전권이 없는 백성이 대신 균역을 부담하는 폐단은 없어진다. ② 토지 사유와 매매는 균역을 문란하게 만들므로 반계는 사전을 없애고 공전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균전제의 시행을 제안하였다. ③ 수전권이 사망 시에 반환되면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균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균역과 토지가 어긋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4경을 단위로 병사 1명을 징발하는 방식은 ‘4경’이라는 토지 단위로 균역 문제를 해결한 것이므로 ‘이지위본’ 방식에 따라 균전제와 균역 문제를 연계한 것이다.

31. [출제의도]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바꿔 쓰기를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 ‘객관적 표준’은 ‘이’를 궁구하여 제도에 적용하기 위해 확립한 것으로 균전제에서는 ‘토지를 근본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객관적 표준’은 ‘도덕’과 다른 것이므로 ㉔를 ‘객관적 표준을 흐리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주기론은 ‘이기불리’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기불리’를 강조하면 ‘이’가 ‘기’에 갇혀 있다는 점만이 강조되고, ‘이’와 ‘기’가 섞이지 않는다는 점은 간과하게 된다. 따라서 주기론에 경도되는 것은 ‘이’가 ‘기’에 갇혀 있다고만 보는 태도와 같다. ② 기(器)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器)에 소홀한 것은 제도 개혁에 관심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③ ‘실리’는 현실의 사물을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주재성을 갖춘 ‘물지리’와 성격이 같다. ⑤ 수전권은 토지를 경작할 권리를 의미하므로 ‘토지를 경작할 권리만 부여되도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32 ~ 36] (교전시가-수필) 안도환, ‘만연사’/이익, ‘할계전’(연계 지문 : 수능특강 57쪽, 294쪽)

32.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유배 전인 ‘전년’의 생활과 유배 온 ‘올해’의 생활을 대비하여 화자가 느끼는 비참한 심정을 부각하였다. (나)는 ‘눈먼 암탉’이 병아리를 제대로 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상과 결과를 대비하여, 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며 거기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하는 글의 논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에는 ‘눈먼 암탉’의 어리석은 행동도, 이로 인해 발생한 나쁜 상황에 대해 화자가 연민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의 화자는 자연의 덕성에 비추어 세태를 비판한 적이 없고, (나)의 ‘눈먼 암탉’이 특별한 지혜를 발휘한 것은 아니다. ‘저 눈먼 닭은 지혜가 있어서 그리한 것은 아니겠으나 방법이 적중하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그믐이라 다른 밤보다 한층 더 어두운 ‘그믐밤’은 ‘근심’에 빠져 눈물로 밤을 새우는 화자의 정서와 어울리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꿈’은, 즐거웠던 과거와 괴로운 현재를 대비하여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본 화자가 무상한 인생을 빗대어 나타낸 대상이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인생의 유한함을 한탄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믐밤’이 인생의 유한함을 환기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어지는 문맥으로 볼 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꽃’을 통해 화자는 “자연은 똑같은데 사람의 일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연의 순환하는 질서를 말하기 위해 ‘꽃’을 소재로 삼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② 화자가 ‘그믐밤’에 포구에서 배 떠나는 소리, 노 젓는 소리를 ‘슬픈 소리’라 한 것은 그 소리가 향수를 자극했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도 있겠다(참고로, 「만연사」의 화자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추자도에 유배된 상태다.). 그러나 화자가 눈앞의 ‘꽃’을 보며 과거를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꽃’을 보며 과거의 호사를 떠올리고, 그래서 현재의 처지를 더욱 한탄할 뿐이다.

34.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과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전년 사람’과 ‘올해 사람’의 ‘인사’(사람의 일, 상황)를 대조한 것은 맞는다. 그러나 이는 유배 오기 전 작년 봄의 자신과 유배지에서 고생하는 올해 봄의 자신을 대조하여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지, 태평성대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시구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땀이 배고 때에 절어 시커멓게 변해 버린 자신의 ‘누비바지’에서, 굴뚝 막는 데 사용하여 시커멓게 변한 ‘떡’을 떠올린 것이다. ② 말하는 것을 보면 살아 있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차림새를 보면 산 사람 같지 않다는 뜻을 대구로 표현했다. ③ ‘장진주’를 부르며 ‘청춘의 술’을 ‘무진무진 떡’이라고 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탁주 한 사발도 값을 치를 돈이 없으니 마실 수 없다는 뜻을 의문형으로 표현함으로써 강조했다. ⑤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엔 누비바지가 너무 더우니, 사계절 중에 봄과 가을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맥락을 바탕으로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병아리들이 ‘저들끼리 알아서 먹이를 쪼아 먹고 자라’니 어미 닭이 ‘먹이를 잘 구’할 필요는 없지만, ‘환란을 잘 막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사람 가까이에서 맴돌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을 조심조심하며 노상 끌어안고 감싸 준’ 것이 병아리들을 안전하게 키워 낸 비결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다음 문단의, ‘병아리가 깨어 나오니 이를 빼앗아서 다른 어미에게 주려 하였’다는 것을 보면, 화자 또한 당시에는 다른 이들의 말에 동의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먹는 일도 제대로 못 하고 담장

에 부딪쳐 헤매곤 하는 눈먼 암탉의 평소 행동을 보고, 병아리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새끼를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③ 눈먼 암탉은 건강하지 못하고 늘 겁에 질려 있으니 ㉠과 ㉡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사나워야 한다'는 조건은, 까마귀와 술개, 고양이나 개 등이 병아리들을 해치려 할 때 '용사가 맹적을 만난 것같이' 대항하는 양육 방식을 의미한다. 눈먼 어미 닭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사람 곁에 늘 가까이 있으면서 병아리들을 품어 줌으로써 보호했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흙을 후비고 숨어 있는 벌레를 찾아내느라 부리와 발톱이 다 닳아 빠지며'라는 구절은 눈먼 암탉이 아니라 다른 건강한 어미 닭들의 양육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한 묘사가 세밀한 관찰에 바탕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눈먼 암탉'에 대한 묘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37 ~ 41] (예술) 연계 지문: 수능특강 40쪽

37.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고흐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화풍은 고갱 및 세잔의 화풍과 더불어 회화가 외부 세계의 재현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회화 자체의 속성인 2차원적 평면의 색채와 형태, 선의 조형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답풀이] ① 첫째 문단에 나와 있듯이 화가의 내면은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표현'의 대상이다. ② 인상주의가 표현한 '인상'이 주관적인 감각이긴 하지만 인상주의자들은 사실주의의 이념에 공감하여 그림을 그렸다. 그들에게는 '인상'이 곧 사실이다. ④ 원색을 병치시켜 혼합 색을 표현하는 인상주의자들의 방법이 고흐에게 수용되었지만, 고흐는 현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⑤ 고흐에게 그림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독자적인 세계이므로 실제 세계를 그대로 닮을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지 고흐의 의도가 그림을 실제 세계와 닮지 않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속 대상들을 명암을 무시한 채 윤곽선으로 둘러싼 것도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38.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개념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인상주의자들이 실제 눈으로 본 것은 눈에 들어온 빛의 자극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극이 만들어 낸 감각이다. 둘째 문단에서 '인상'이 감각이라는 점을 정확히 독해해야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사실주의 이념에 공감하여 실제 눈으로 본 것만 그리려는 인상주의자들 역시 사실의 정확한 재현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사실이란 바로 '인상'이었다. ③ 순간적인 '인상'을 중시한 인상주의자들은 짧고 끊어지는 붓 터치로 빠르게 그림을 그렸고 그에 따라 화면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원근법과 명암법이 파괴되었다. ④ 인상주의자들은 '인상'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짧고 끊어지는 붓 터치로 그림을 그렸다. ⑤ 인상주의자들이 화면에 직접 원색을 병치시켜 표현한 것은 관람자의 망막에서 혼합이 이루어지게끔 하고자 한 것이므로 자신들이 본 '인상'을 관람자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39.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작품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고흐가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원색을 구불거리거나 휘몰아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짧게 끊어지는 형태로 병치시킨 것은 인상주의자들의 방법이다.

[오답풀이] ① 넷째 문단에 '이 장면은 고흐의 내면

의 열정과 광기가 프로방스 지방의 밤하늘을 만나 화해하는 순간의 감정을 표현한 듯하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② 화가의 소망이 투영된 대상은 거대한 사이프러스 나무로서 원근법을 무시한 채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③ 고흐의 그림에서 명암법을 무시한 윤곽선의 사용은 평면성을 강화하는 요소인데, 이 작품에서도 그러한 윤곽선이 사용되고 있다. ⑤ 우측 하단에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은 병원에서 보이는 마을이 아니라 고흐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었던 그의 고향 마을이다.

40. [출제의도] <보기>에 소개된 세잔과 지문의 인상주의자 및 고흐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후기 인상주의자 중 한 명인 세잔의 작품 세계가 소개되고 있다. 세잔 역시 고흐나 인상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원근법을 거부했지만 그 이유는 두 눈으로 보는 세계가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상주의자들이 발견한 색채를 수용했지만 형태와 구조를 중시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선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정답풀이] 고흐가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근법을 무시한 반면 세잔은 원근법으로 그려진 세계는 환영이라고 생각하며 두 눈으로 보는 진실한 세계를 표현하려 했다.

[오답풀이] ② 고흐와 세잔은 모두 회화 자체의 속성에 주목하게 한 화가이다. 그러나 고흐이든 세잔이든 외형적 요소를 그림에서 제거한 것은 아니다. ③ 세잔이 인상주의자와 달리 사물의 바탕에 있는 변화하지 않는 구조를 표현한 것은 맞지만 세잔이 사물의 색채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④ 세잔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 변화하지 않는 구조를 중시했고 형태의 단단함을 표현하려 했으므로 조형적 요소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⑤ 고흐는 작가의 내면을 표현하려 했지만 세잔은 두 눈으로 보는 세계를 평면에 그리려 하였다. 그리고 세잔은 사물의 밑바탕에 있는 변화하지 않는 구조를 중시했기에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형했다고 볼 수도 없다.

41. [출제의도] 문맥에 따른 단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과 ④의 문장에서 '마르다'는 모두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에서 '담다'는 '어떤 내용이나 사상을 그림, 글, 말 따위의 속에 포함하거나 반영하다.'의 의미로 쓰였고, ①의 '담다'는 '어떤 물건을 그릇 따위에 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의 '오다'는 '어떠한 때나 시간에 이르다.'의 의미로 쓰였고, ③의 '오다'는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의 '벗어나다'는 '어떠한 범위나 경계 밖으로 빠져나오다.'의 의미로 쓰였고, ⑤의 '벗어나다'는 '이야기의 흐름이 빗나가다.'의 의미로 쓰였다.

[42 ~ 45] (현대소설) 임철우, '동행' (연계 지문: 수능특강 248쪽)

42.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서술자는 '나'이므로 1인칭 서술인데, 그 서술자가 다른 등장인물을 '너', 곧 이인칭 대명사로 지칭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등장인물을 '너'라고 지칭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너'에 대해 '나'(=서술자)가 품는 감정이나 생각을 훨씬 더 진솔하고 호소력 있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편지 같은 글에서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오답풀이] ① 서술자는 '나'이므로 이야기 외부에 위치해 있지 않다. ②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만 서술자는 바뀌지 않는다. ③ 서술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④ 서술자가 순간적으로 '너'를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기는 하

지만, 풍자적 어조를 구사하고 있지는 않다.

43. [출제의도] 특정 구절의 서사적 기능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상황은 인물의 내적 갈등 해소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나'는 ㉠ 뒤에 '스스로도 분간키 어려운 온갖 감정들이 엉망으로 헝클어지고 엉켜져' 있는 듯한 기분에 빠져들고 있다.

[오답풀이] ① 시야가 캄캄해져 버렸으므로 외부와 차단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나'는 갑자기 나타난 '너'에 대해 자신이 품고 있는 솔직한 심정을 독백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가 외부의 빛이 다시 들어옴으로써 눈앞이 환해진 상황으로, 외부와의 연결이 재개되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인지 '나'는 바로 조금 전 터널 안에서 자신이 품었던 생각을 '너'에 대한 은밀한 배신'이었다며 돌이켜 보고 있다. ③ 실내가 어두워지자 '나'는 시각적으로는 천장의 전구가 '눈을 부릅'뜨는 것처럼, 청각적으로는 '쇠바퀴의 진동음'이 훨씬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그에 따라 '나'가 어지러움증이나 조급함 등을 느끼고 있으므로, 그러한 변화가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이나 ㉡ 이후 '나'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너', 곧 타인의 존재로 인해 유발되는 것이므로, ㉠과 ㉡이 그러한 감정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외부 정보를 참고하여 구절의 함축적 의미를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나'가 '너'를 쳐다보기 두려워하는 것은 터널 안에서 '너'를 배신하는 듯한 생각을 떠올려서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지, 그동안 누린 평온한 일상으로 인해 '너'에게 질책을 당할까 두려워해서가 아니다. '너'가 '나'를 질책하는 듯한 분위기나 이에 대한 '나'의 두려움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너'에 대한 사랑을 '꼬리뼈의 흔적'처럼 남기겠다는 것은 '너'를 현재가 아닌 과거의 존재로 남겨 두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꼬리뼈란 과거에 우리 인간에게 있었으나 이제는 없어진 꼬리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④ '너'가 '나'에게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것은 혹시 역 앞에서 경찰에게 자신이 체포될 경우 '나'는 그 화를 피하라는 의미에서이다. 수배 중인 자신의 처지로 인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에서 당시의 상시적인 감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외부 정보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너'가 사라지고 난 뒤의 그 어두운 빈자리를 이제 자신이 채우겠다는 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너'의 뒤를 이어서 자신도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이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처(=고통받는 '너')와 단절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너'로 인해 '나'가 떠올리는 '제단' 위의 '순결한 짐승'은 희생양의 이미지로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을 환기시킨다. 그러므로 순결한 짐승의 가죽이 제단으로부터 치워져 버렸다는 것은 그 희생자들을 낳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잊혀 가고 있는 현실을 암시한다. ② '나'는 '뭔가 말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도 '그걸 아직도 모르겠'다며 갑갑한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군부 정권에 의해 광주에 대한 발설이나 민주화를 위한 시도가 봉쇄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의 말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느꼈을 무력감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④ '짜구려 비닐우산'은 정권의 폭압 앞에선 나약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너'가 '나'에게 이를 건네주는 장면은, 비록 힘이 나약하고 미약하더라도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